

# 금융지주,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4대지주 작년 당기순이익 16.6조 예상 사상최대 실적 대비 1조 이상 늘어 KB금융 순이익 사상 첫 5조클럽 전망 신한 4.6조, 하나 3.7조, 우리 3조 호실적에도 상생금융 압박에 부담



16조6213억으로 전년(14조9279억) 대비 1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지난 2022년(15조5309억) 대비 1조원 이상 많은 수치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의 2024년 예상 순이익은 5조896억으로 전년(4조6319억) 대비 9.9% 증가해 사상 첫 '5조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의 당기순이익은 4조6837억으로 전년(4조3680억) 대비 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과 순이익 격차는 약 3800억원으로 KB금융이 '리딩금융'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하나금융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3조7962억원, 우리금융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21.7% 상승한 3조518억원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의 경우 2년 만에 '3조 클럽' 복귀 가능성이 예상된다.

4대 금융지주 순이익 전망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지난해 은행을 중심으로 벌어들인 이자 이익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쭉거리자 가계대출 수요가 많아졌다. 하반기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압박으로 은행들이 대

출금리를 인상하면서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서 이자 수익이 커졌다.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지만 금융지주의 분위기는 어둡다. 금융당국에 이어 정치권까지 상생금융 확대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내역을 공시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고, 은행법 개정안까지 제출하면서 가산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달 20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주요 시중 은행장을 소집했고, 이 자리에서 은행권의 '상생' 역할을 당부했다.

현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대권 유력 후보가 은행장을 만나 사실상 더 많은 '상생 금융'을 주문한 것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민생금융지원방안' 이행을 위해 2조154억원을 집행했고, 지난해 말에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연간 7000억원, 총 2조원이 넘는 상생금융 '시즌2'도 발표했다.

금융권에서는 실적발표 이후 정치권에서 또 다시 상생금융을 압박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이자수익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실적을 위해 대출금리를 올린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린 것"이라며 "은행권은 고객과 소상공인을 위해 상생금융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상생금융을 강조하지만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3기 신도시' 서울 인접 고양창릉 본청약

31일부터 3개 블록 1792호 공급  
은평·마포 가깝지만 분양가 부담

올해 3기 신도시의 본청약이 '고양창릉지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당초 고양창릉은 서울과 가장 가까운 입지로 각광을 받았던 곳이었지만 사전청약당시보다 1억원까지 오른 분양가가 부담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되는 2030년까지는 불편한 교통도 감안해야 한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3기 신도시 고양창릉 3개 블록(A4·S5·S6), 총 1792호의 본청약을 진행한다.

고양창릉 공공택지지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등 일원에 789만㎡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일단 입지가 좋다. 서울 은평구, 마포구 등과 인접해 있어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 가능하다. GTX-A 노선 창릉역이 오는 2030년 개통 예정이며, 서울문산고속도로와 자유로, 제2자유로 등을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A4, S5, S6블록은 고양창릉 지구 내에서도 입주 수요가 몰렸던 곳이다. 지난 2021년 사전청약 당시 경쟁률은 각각 평균 6대 1, 43대 1, 26대 1에 달했다. S5블록 84형의 경우 경쟁률이 최대 165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고양창릉 A4블록 조감도.

/LH

분양가는 사전청약당시보다 크게 뛰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사전 청약자들이 몇 년 만에 1억원 넘게 오른 분양가를 감당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인천 계양지구의 경우 사전청약자 가운데 절반 가량이 본청약을 포기한 바 있다.

A4블록은 신촌희망타운으로 공공분양 603호가 공급된다. 일반 청약물량은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186세대다.

전용면적 55㎡ 단일 평형이며, 분양가는 평균 5억5000만원 안팎이다. 사전청약 분양가 4억7000만원 대비 17%나 올랐다.

S5블록은 총 759세대며, 전용면적 ▲51㎡ ▲59㎡ ▲74㎡ ▲84㎡ 등으로 구성됐다.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 청약 물량은 126세대다.

사전청약당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로 평균 분양 가격은 ▲51형 4억8000만원 ▲59형 5억5000만원 ▲74형 6억8000만원 ▲84형 7억7000만원 등이다. 사전청약 분양가와 비교하면 84형 기준으로 1억원이 올랐다.

S6블록은 총 430세대, 전용면적 59㎡, 74㎡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물량은 79세대며, 평균 분양 가격은 ▲59㎡형 5억7000만원 ▲74㎡형 7억1000만원이다. 74㎡형의 사전청약 분양가는 6억2000만원이었다. 입주는 A4블록은 오는 2027년 12월, S5블록과 S6블록은 2028년 1월 예정이다. 건본주택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에 마련된다. 전 시관은 지구 위치도, 단지 모형도 등을 비롯하여 3개 타입(55A·59A·84A)의 건본주택을 볼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해외건설협, 기획조정실 신설 등 조직개편

전문성·직무이력 기반 인재 배치  
해외건설멘토링센터 정책본부 편입

해외건설협회는 기획조정실 신설 등 조직을 개편하고 보직인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회장

직속의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독립부서인 해외건설멘토링센터는 정책본부에 편입키로 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전문성과 직무이력을 기반으로 한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다. 경영지원본부장에 김태엽 상무이사, 글로벌사업본부장에 김운중 상무

이사, 정책본부장에 정창구 상무보를 임명하고, 새로 신설하는 회장 직속의 기획조정실장에는 이용광 상무보를 보직 발령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 및 인사를 통해 융복합 K-시티(City) 플랫폼 등 핵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재정비하고 해외건설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 첫째주 래미안원페를라 등 2295가구 공급

### 분양 캘린더

방배동 등 전국 4곳서 청약  
건본주택 개관 단지는 없어

2월 첫째주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를 비롯해 전국 4개 단지가 청약을 받는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에 총 2295가구(일반분양 925가구)가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그렇지만 건본주택 개관 단지가 없어 2월 초까지는 한산한 분위기가 예상된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서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을 통해 '래미안원페를라'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동, 총 10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120㎡, 48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내방역 역세권 단지다. 서리폴터널, 서초대로 등을 통해 강남 업무지구(GBD)까지 접근이 용이하다. 방배초, 서문여중·고교가 도보 통학권이다. 해당 단지는 후분양 아파트로 2025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한양건설은 광주 광산구 하산동 일원



래미안원페를라 투시도.

/삼성물산

에서 '한양립스에듀포레'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0개동, 총 470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84~89㎡, 118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무안광주고속도로 서광산나들목(IC), 13번국도(동곡로) 등을 통해 나주, 함평, 무안 등 인접도시로 이동이 편리하다.

평동일반산업단지,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광주에너지밸리 등이 차로 10분 정도 소요돼 직주 근접이 가능한 배후주거지로 기능할 전망이다.

/전지원 기자 jiw13@

## 국민銀, 적금 비대면 가입고객 경품 증정

모여봐요 KB스타뱅킹으로 이벤트  
아이패드 에어11·커피쿠폰 등 지급

KB국민은행은 비대면 적금 가입고객을 위한 '모여봐요 2025년 목돈, 모여봐요 KB스타뱅킹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새해 들어 목돈 마련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벤트 참가 대상은 KB스타뱅킹에서 적금 상품(청약상품제외)을 10만원 이상 금액으로 가입하고, 매월 5만원 이상의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 중 이벤

트에 응모한 고객이다.

경품은 추첨을 통해 1명에게는 '아이패드 에어11'을 1000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지급한다. 다음달 7일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벤트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2025년 새해를 맞아 많은 고객님들이 안전한 적금 상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다채로운 경품 혜택과 함께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